

# 진각종 교육불사 '구슬땀'

## 대구·포항 심인당에 불교대학 신설

진각종(총리원장 최정)이 '교육불사'를 통해 종단 내실다지기에 나섰다.

올해 개설된 대구 의밀심인당과 포항 상륜심인당 부설 불교대학의 경우 총리원에서 장소와 강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불교대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진각종이 올해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족 포교운동' 캠페인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 단위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불교 교리는 물론 명상, 요가, 음악, 미술 등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1일 처음 문을 연 대구 의밀심인당 부설 진각불교문화대학은 불교교리와 불적답사, 신나는 가요교실, 명상·요가 등 3개의 기본강좌를 개설했다.

불교교리와 불적답사는 불교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 놓았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에

서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가요교실과 명상·요가 교실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실기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짜놓았다. 특히 명상·요가 교실은 개설한지 얼마 안돼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주에 처음 문을 연 포항 상륜심인당 부설 금강불교대학도 '일기 쉬운 불교강좌'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이 강좌는 초심자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강의해 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서울 밀각심인당 부설 삼밀불교대학도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속에 나타난 진각종의 모습을 체득하고, 심인당 활동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삼밀불교대학은 불교문화, 밀교사상과 같은 불교 본연의 이론뿐만 아니라

<부모운동> <금강경>과 같은 경전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어온 울산 정지심인당 부설 정지불교문화대학은 올해부터 강좌를 4개로 늘려 풍성한 학습효과를 꾀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개설, 한달에 8회, 20시간씩 진행되는 정지불교문화대학은 미술공예강좌, 불교교리강좌, 요가강좌, 노래교실강좌 등을 개설, 횡수가 더할수록 신교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불교교리강좌는 기초이론부터 시작해 육자진언의 공덕과 진각교전 교리편을 교육한다.

진각종 총리원 교육부장 경당정사는 "심인당내 만들어 지는 부설대학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속속 개설을 준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밀각 심인당의 경우도 불교방송 건물에 총리원 차원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심인당 교육불사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립하는 등 종단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산 스님은 순방이 끝난 뒤 총무원과 교구총무원 및 사찰간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 종단 기강확립에 역점

### 총화중을 사업계획 발표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은 3월 27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총화종은 우선 연내 총무원내 사회문화 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문화프로

그램과 복지시설을 통해 종도들은 물론 대인 포교도 적극 활성화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본발사의 화합과 결집을 위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오사카와 교토 등 일본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종단의 위상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종단에 대한 대중행위자의 징계를 한층더 강화할 방침이다.

남정 스님은 "올해 종단에서는 기강확립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종단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세계불교도우의회 초청

### 진각종대표단 태국 방문

진각종 총리원장 최정 정사를 비롯해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 진각종 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WFB·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초청으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 있는 본부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진각종 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 팜 와나메티(Pham Wannamethee) 회장과 팜 타이와리(Phallop Theany) 사무총장 등과 회담을 갖고 불교발전과 상호교류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총리원장 최정 정사와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은 3월 22일 스리랑카 네콤보에 있는 JGO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 전승관 건립, 종도 동참 당부

### 태고종 총무원장 지방 순방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올 10월에 완공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성금 모금을 위해 21개 지방 교구 및 사찰 순방에 나섰다.

운산 스님은 3월 6일 충북교구총무원을 시작으로 제주교구,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교구, 강원교구 등을 차례로 순방하며 4월말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에 전 종도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운산 스님은 이번 순방에서 전승관 건립불사 동참 유도 이외에도 정채성을 확

## 원웅종 창종 26주년 법회

###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대한불교원웅종(총무원장 범륜)은 3월 26일 서울 원웅사 대법당에서 '창종 26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총정 일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원웅사상이란 동급과 융통하다는 것이다"며 "종도들은 창종 기념일을 맞아 원만 융통한 대인상을 행하며 이 사회가 개체중심이 아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원웅회통의 사회를 만드는 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회가 끝난 뒤 법회에 참석했던 범륜



3월 26일 서울 원웅사 대법당에서 열린 원웅종 창종 26주년 기념법회 모습.

총무원장을 비롯해 1백여 사부대중은 원웅종 총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노인들을 초청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김주일 기자

# 군법사 있어도 법당이 없다



과화단 불자 장병들이 천막에서 법당 건립을 빌원하는 1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과화단 천막에 부처님 모시고 법회 장병들이 십시일반으로 간신히 기공식 공사비 2억원엔 턱없이 부족

## 과화단, 천막에 부처님 모시고 법회

### 장병들이 십시일반으로 간신히 기공식

### 공사비 2억원엔 턱없이 부족

이늘어날 것'이라며 "장병 불자들이 십시일반 보시를 하고 법당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급전적인 보시는 한계가 있어 기도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100일 기도의 취지를 밝혔다.

대동청기사에서 목공공사와 기와불사

이늘어날 것'이라며 "장병 불자들이 십시일반 보시를 하고 법당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급전적인 보시는 한계가 있어 기도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100일 기도의 취지를 밝혔다.

대동청기사에서 목공공사와 기와불사

를 보시고 공사도 원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해 3월 중순부터 간단한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비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회 총무 박석수 대위는 "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바른 법을 전하는 불교정토를 만들기 위한 불자 장병들의 노력을 대덕 스님과 불자들이 알아주시고 마음을 내어 원만하게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전법법당에서 기도하는 장병들은 고대하고 있다"고 법당 건립에 동참을 호소했다.

100일기도 회향을 앞둔 불자 장병들의 마음은 무겁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연등에 불을 밝히고 부대 내에서도 제등행진 등 행사를 하고 싶지만 천막법당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호국 응봉사가 창건되고 불자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활기찬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오늘도 열심히 부처님전에 예불을 올린다.

조철호 군법사는 "불자장병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원을 하고 있는 만큼 법사로써 더 분발하게 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후원 계좌 : 325026-51-109410(농협 예금주정승민) 글·사진/인제=김두식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갈광저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인등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불교와 문화**  
2006 0304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대안문화연구소 | 정성운·유영민·김영민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현 스님의 2006 신사의 풍경소리 | 나의 행자시절

특집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불자들의 실행계획운동인 '청정운동'을 조명한다.

왜 다시 청정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방향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상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미주 전법(傳法) 40년이 지난 전환기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에 맞는 한국불교 - 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종법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법관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법원법고, 법원법고 | ● 마음승려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강원도 양구 노도부대 의선사, 배대원 법사

한호를 쉬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꽃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획 | 소설가 김중혁이 쓰는 '백이강'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직은바를찾아서 | 한국자수박물관

국제불교 신학 | 미국 하버드대학 임이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문밖 문고 종교를 버려보라"

해외통신 | 옥스퍼드에서 뛰우는 편지

영국의 작은박물관,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나쁜한 번날을 위한 산야초 보식

건강세이 |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역사시대 수행원정 | 조선시대 명백 최선으로 어둠을 밝힌 이들

생활 속의 불교생활 | 명색(名色), 본질(本質)에서 접해가던 그 오묘함에 대하여

고전읽기의 즐거움 | 외롭고 한가한 수행자, 범주사 고현(高顯) 대사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태어행 ● 서울의 옛다리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 제8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8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 공모분야 및 주제

분야	공모편수	주제		비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 건당(建幢) ② 제가·출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교 일반	3편			
밀교 일반	3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수 마 감 - 2006년 4월 28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5월 30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6년 11월 24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